

내 마음엔

관 물 이 날 여

폴·베르레느 原作  
趙 靈 出 譯

거리에 비오듯이  
내 마음엔 눈물이 난인다  
숨을은 무슨가닭에  
내 마음을 파고드나

당외두 짐승에두  
간헐은 비스초리  
피곤한 마음을 위해  
오오 읊조리는 비스발이여

답답한 마음속엔  
력없이 눈물이 날인다  
뭐나 무슨 모함이나  
이喪禮는 까닭이 없고나

가닭을 모르니  
좌없이 퍼로워  
사랑도없고 원망도 없이  
내 마음은 이다지도 압축다。

影 子

大 應

사랑이 그리워 님이 그리워  
깊을밤 좁은길을 더듬었드니  
고요한 빈방에 燭불만 煌輝롭다。

님이시여!  
키—돈밀 하히안花瓶에  
한폭의水仙花 그윽한香氣는  
님의 無限愛의 象徴이오니가?

파리한손으로 여윈불을 피이고 눈은감다。  
臙朦하게 煙氣같이 피여울은는意識  
오——그애의 그香氣잇드냐!!

戊寅(二九六五)一一、七

新羅瑞巖和尚의

三段法語 (一譯)

趙 宗 玄

一

못노니 和尚이여  
어떤것이 禪인게오  
여봐라 이층아  
무덤이 집이드나

二

알고저 하옵나니  
道란것이 무언게오  
말어라 그만두라  
부지런슨 馬夫로다

三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것이 教라시고  
첫보고 잘볼나  
좀먹은 禪冊張을

(戊寅十一月)

(附原文)  
如何是禪

古塚不爲家

如何是道

徒勞車馬迹

如何是教

貝葉收不盡

(右傳燈錄)

떠나는 동무여

尹 二 祚

동무여!

떠나면 가는곳이 어디인가  
燭世가 그다지도 피뎡든가  
사랑도 눈물도 실음도  
그리고 이땅의 실은 佛說도  
열은胸中에 埋葬하야 버리고  
떠날것이 무엇인가  
血汗의 蒸氣는 맑은 靑空에 雲凝하야  
半生의 남은恨을 풀논이  
乾燥한 나의顔面에 悲愁의 물결이  
追憶의 森林을 불드리노라

동무여!

떠나면 가는곳이 어디인가  
純情의 愛戀을 직히는  
百合과 薔薇의 香氣 넘치는